



광주 FC 최고참 김창수

## “국대 출신 베테랑의 힘 보여주겠다”

“싸움 잘한다”면서 웃은 17년 차 베테랑 김창수(34)가 광주FC에 투지와 겸손을 심는다.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는 최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창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울산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전북 등을 거친 그는 프로 통산 258경기에 나와 8골 19도움을 기록한 베테랑. 2012년 K리그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2009년 시리아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A대표팀에 데뷔한 뒤 2012 런던올림픽, 2013 EAFF E-1 풋볼 챔피언십, 2014 브라질 월드컵, 2015 아시안컵,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등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그가 ‘젊은 팀’ 광주에 오면서 경험에 무게가 더해졌다. 1985년 생인 김창수는 광주의 ‘만형’이기도 하다.

힘난한 K리그1에 도전하는 박진섭 감독은 그의 경험을 생존전략 중 하나로 선택했다. 김창수가 신인시절이었던 2004년 울산에서, 2009~2010년 부산에서 선수로 함께 했던 만큼 그의 능력도 잘 알고 있다.

김창수도 자신을 불러들인 박 감독의 의중을 잘 안다.

김창수는 “(선수시절) 같이 경기를 했을 때 영리하게 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식한 거 안 좋아하고 영리한 것 좋아하십니다. 센스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셨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박 감독은 ‘생각하는 축구’를 강조

### 전략은 ‘경험’

프로 통산 258경기 출전

2012년 K리그 베스트 11

올림픽·월드컵 등 국가대표 활약

### 무기는 ‘투지’

싸움 잘한다... 선배가 몸사리면 안돼

후배들과 필드서 실력으로 경쟁

K리그1 잔류 위해 모든 것 쏟겠다

한다. 그리고 김창수가 맡게 될 오른쪽 풀백은 박 감독의 현역시절 자리이자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 한 포지션이다.

김창수는 “감독님도 같은 오른쪽 풀백 출신이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제가 가진 능력껏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투지도 박 감독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어린 후배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 수 있도록 김창수가 전면에 나설 생각이다.

김창수는 “싸움 잘한다. 퇴장을 좀 많이 당했다

(웃음). 퇴장 안 당할 상황에서 싸워야 할 것들은 싸워줘야 한다. 그래야 밑에 있는 선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몸 사리고 그러면 안된다”며 “광주 와서 보니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 부담감도 있지만 필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경쟁을 하는 게 맞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연도 해주면서 경기에 뛰든 안 뛰든 팀이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치열한 프로 세계에서 버티며 17번째 시즌을 맞게 된 김창수는 ‘겸손’도 이야기했다.

그는 “같이 프로에 입단한 선수 중에서 박주영, 이근호 정도 남아있다. 입단했을 때 저보다 잘한 친구도 있었고 경기도 먼저 뛰는 선수도 있는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오래 하더라”며 “광주FC 선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겸손하고 길게 보면서 성실하게 하면 빛을 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1년 또 하게됐다”는 감격으로 2020시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특별하지는 않다.

김창수는 “예전에는 목표를 많이 정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목표 보다는 안 다치고 경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선수들이랑 대화 많이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겠다. K리그2 와 K리그1은 다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후배들이 많이 힘들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2020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백도원, 2수 끝 광주 FC 유니폼

입단테스트 통과... 중앙 미드필더로 컨트롤·안정적 볼 소유 장점

목포과학대 출신의 미드필더 백도원이 두 번의 도전 끝에 광주FC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가 9일 신인 백도원(22)을 영입했다. 180cm·72kg의 백도원은 안정적인 볼 소유와 컨트롤이 장점이던 중앙 미드필더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왼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닉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 능력도 뛰어나다.

두 번의 테스트 끝에 얻은 프로 타이틀이다. 백도원은 지난해 겨울 전주대 출신 김주공과 함께 광주의 입단 테스트에 참여했지만 프로 데뷔에

실패했다. 하지만 가능성을 눈여겨 본 광주 박진섭 감독은 지난여름 다시 한번 테스트 기회를 줬고, 2개월여의 합숙 끝에 광주 입단에 성공했다.

백도원은 지난 시즌 프로데뷔골을 터트리는 등 광주의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른 김주공에 이어 2020시즌 ‘스타 탄생’을 노리게 됐다.

백도원은 “가능성을 인정해준 광주의 박진섭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양루니’ 이종호 5년만의 귀향

전남 드래곤즈 공격력 강화... 탄탄한 체력 높은 공격력 갖춰

‘광양루니’ 이종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9일 공격력 강화를 위해 이종호를 영입했다.

이종호의 5시즌 만의 복귀다. 이종호는 지난해 울산 현대 소속으로 일본 J2리그 V 바렌 나가사키에서 임대 선수로 뛰었다.

울산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던 전경준 감독의 공격력 강화 전략으로 다시 친정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종호는 광양제철중·고를 거쳐 지난 2011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전남의 아들’이다.

강인한 피지컬과 체력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량과 투지 높은 공격력을 과시하며 ‘광양루니’로 사

랑받았다.

2015시즌까지 전남에서 148경기에 나와 36골 14도움을 기록한 이종호는 지난 2016년 전북 현대를 거쳐 2017년 울산 현대로 이적했다.

팀 내 치열한 경쟁과 부상으로 고전했던 이종호는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와 ‘전남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됐다.

이종호는 “나의 고향팀 전남으로 돌아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기쁘다. 비록 전남이 2부리그에 있지만 시즌 말에는 승격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경기장을 많이 찾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 신인들 총출동... 16일 대전서 적응 교육

KBO의 ‘루키’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KBO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20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올 시즌 신인선수와 육성선수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신인 오리엔테이션은 6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인 KBO리그를 소개하는 KBO운영팀의 강의에 이어, 야구 선배들이 새 출발을 앞둔 후배들을 위해 직접 강단에 선다.

KBO 이승엽 홍보대사는 23년간 프로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고, 신인선수

들의 프로야구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예정이다.

SBS SPORTS 이종열 해설위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소양 교육 강사로 나선다.

신인선수들의 건강한 선수 생활을 위해 반도핑 교육과 부정행위 및 스포츠 윤리교육도 진행된다.

KBO 반도핑 자문위원인 경희대학교 이종하 교수가 반도핑 교육을 맡고, 천안지청 형사2부의 이준 부장검사가 부정행위 및 스포츠 윤리교육을 담당한다.

이어 선수들의 재정관리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준비한 특별 강연이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

## 기성용 향한 셀틱 전설의 러브콜

재키 맥나마라 전 감독 “주급 깎아서라도 친정팀에 복귀했으면”

차기 행선지를 몰색 중인 기성용(31)을 향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출신 레전드가 복귀를 바라는 ‘러브콜’을 보냈다.

현역 시절 셀틱에서 수비수로 10시즌을 뛴 재키 맥나마라 전 감독은 9일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사이드’와 인터뷰에서 기성용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맥나마라 전 감독은 “셀틱의 닐 레넌 감독이 기성용을 원하고 있지만, 그의 주급을 감당할 수 없어

이대로는 이적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성용이 주급을 깎아서라도 친정팀에 돌아와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2009년 FC서울에서 셀틱으로 이적해 2시즌 반 동안 만점 활약을 펼쳤다. 총 87경기에 출전해 11골을 넣었다. 기성용은 셀틱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해 전성기를 보냈다.

기성용은 현 소속팀 뉴캐슬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겨울 이적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뉴캐슬로서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기성용을 올려줄 이적료라도 받고 내보내려고 한다. 기성용 입장에서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당장 될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상황에서 글래스고 라이벌 레인저스와 승점 2점 차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셀틱이 기성용의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훌쩍 뛰어버린 기성용의 연봉 때문에 난항에 빠졌다.

과거 셀틱에서 연봉 약 8억원을 받았던 기성용은 현재 뉴캐슬에서 32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성용의 차기 행선지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등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